

물밑 움직임 활발...김병내 거취 관심

동남갑

광주 동남갑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 맞서 다수의 입지자들이 물밑에서 경쟁 중이다. 기재부 출신인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은 최근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본격 총선 준비에 나섰다. 장병완 전 의원 참모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장관은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광주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경제 국토교통연구소'를 남구에 개소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임선숙 변호사의 남편인 정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



윤영덕



김병내



노형욱



문상욱



문정은



정진욱



최영호

에 따라 김병내 남구청장도 언제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6·7대 전남도의회를 지낸 문상욱 동남갑 당협위원장, 정의당은 문정은 전 광주시 청년센터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

에는 광주의 새로운 정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 광주 세상'을 공식 출범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영호 전 남구청장도 조만간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상황

최근 한전 상임 감사 임기를 마친 최

정당에서는 문정은 전 광주시 청년센터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

전 구청장·고위 관료 치열한 경쟁

동남을

'정치 1번지'인 동남을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에 맞서 전 구청장과 고위 관료 출신들의 등판설이 나오고 있다. 먼저 화순 출신인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차관은 2004년 이후 16년 만에 호남 출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재정·예산통'으로 불린다. 민선 8기 들어서는 광주 시 첫 재정경제지문역을 맡으며 지역 현안 국비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노희용·김성환 전 동구청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노 전 청장은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병훈



김미화



김성환



김해경



노희용



문종식



안도걸



홍성남

지난해 9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전 청장은 정치계 복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민주당 입당에 성공해

현재 저의 새로운 정치적 여건이 형성돼 있는 상태"며 "구체적인 계획은 복귀 시점은 유권자에 뜻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여기에 광주은행 임원 출신인 김해경 남부대 초빙 교수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평등지문위원을 지낸 문종식 동남을 당협위원장이,

정의당에서는 홍성남 동남구지역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이다. 진보당은 김미화 전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이 나설다. /김용현 기자



이형석



김인숙



전진숙



윤민호



황순영

조용한 판세...새 인물 등판 촉각

북구를

북구을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재선 도전에 전진숙 전 광주시의회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시의원은 광주여성민우회 공동대표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등 풍부한 시민 사회활동 경험과 북구 의원, 시의원을 거쳐 지역 정치권에

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지역 여성 정치인 최초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 발탁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남도의회를 지낸 김인숙 호남사랑이사장이, 정의당은 황순영 북구지역위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진보당은 윤민호 북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나선다. 북구를 선거전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강기정 시장과 이형석 의원의 관계다. 이 의원은 강 시장과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적 악연을 맺었다. 이에 지역 정치에서는 중앙당이나 강 시장 주변 새로운 인물이 선거판에 뛰어 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



조오섭



김주업



문상필



이동국



정준호



진선기

조오섭 아성에 정준호 도전장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갑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경선에서 조 의원에 패한 정준호 변호사의 재출마가 유력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북구갑 국회의원 출마 이후 지역 내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지지기반을 닦았다. 최근에는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해 지역주민과 밀착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의원과 북구청장 경선을 펼친 적이 있는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과 동구에서 북구로 지역구를 바꾼 진선기 전 광주시의원도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구갑은 현역 프리미엄에다 강기정 시장의 탄탄한 지역 기반을 등에 업고 있는 조 의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 시장의 전 지역구를 이어받은 조 의원은 강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전남대학생운동권 출신인 조 의원은

같은 대학 운동권 선배인 강 시장이 광주 북갑 국회의원으로 있던 2011년 동일 지역구 광주시의원으로서 정계에 입문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 이용섭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이에 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연대 등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북구위원을 지낸 이동국 북구갑 당협위원장이, 진보당은 김주업 광주시당 위원장이 나선다. /김용현 기자



송갑석



강승철



김명진



박형민



윤종록



조인철

송갑석 지방선거 공천 후폭풍 변수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등 의정 성과를 발판 삼아 3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전통시장, 경로잔치 등 민생현장을 누비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더연 정치연구소'를 설립, 주요 현안을 연구해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등 유권자들과 밀도 높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출신으로 민선 7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부시장은 지역 내 각종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열광 알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구갑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송 의원의 3선 여부다. 송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으로 개혁 공천을 주도했다. 당시 자기

사람 심기 등 원칙과 기준 없는 잣대에 공천 탈락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눈에 띄지 않는 의정활동 등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윤종록 반부패 국민운동광주시 사무총장이, 정의당은 박형민 농성·화정동집수피해주민대책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이다. 진보당에서는 강승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나선다. /김용현 기자



이용빈



김정현



박균택



이용섭



정희성



황경순

재선 도전 이용빈에 박균택 출전 준비

광신갑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역민 소통·법안 발의 등 무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맞서는 대항마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탐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꼽힌다. 박 전 고검장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광산'을 설립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성남FC 사건을 수임하는 등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밀착마크를 하고 있다.

광산에서 재선을 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이, 정의당에서는 황경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이다. 진보당은 정희성 공동대표가 나선다. /김용현 기자

무주공산에 입지자 난립 '안갯속'

서구를

광주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을은 민주당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총선 전까지 직무대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천정배 전 의원, 김경만 의원(민주당 비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등 4명이 벌써 치열

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잠재적 출마 후보군으로 김영남 전 시의원이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총괄하고 있는 양 전 부산고검장은 서구를 지역구에 지난해 사무실을 냈다.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의원은 품암호수수집개선안 토론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양향자



강은미



김경만



김해정



양부남



이남재



천정배



하현식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가인 김경만 민주당 의원(비례)은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

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며 표발을 갈고 있다. 이남재 전 수석은 지난 총선 출마 실패 이후에도 서구을에 남아 지속해서

조직원리에 나서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도 재선 지역구로 서구을을 선택해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펼친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현식 서구를 당협위원장이, 진보당은 김해정 품암호수원형보전 공동대책위원장이 나선다. /김용현 기자